

“캐디 좀 구해주세요”

KLPGA KB스타투어·한국여자오픈대회 하우스캐디 지원제한...선수들 캐디구하기 비상

올해 국내 남녀 프로골프 대회가 크게 늘어나면서 반색하던 선수들이 ‘캐디난(難)’이라는 암초를 만나 몰상이다.

11일부터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 KB스타투어 1차전을 개최하는 경기도 용인 88골프장은 대회기간 하우스캐디 30명만 지원하기로 했다.

골프장에 상시 고용하고 있는 캐디 가운데 대회 때 프로 선수들의 백을 맡는 하우스캐디가 30명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면 70명 이상의 선수가 스스로 캐디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19일 개막하는 한국여자오픈 때는 아예 하우스캐디를 단 한 명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대회가 치러질 태영골프장의 입장이다.

골프장이 하우스캐디 지원을 않기로

한 것은 일반 내장객을 받을 때와 달리 캐디들을 한꺼번에 코스에 내보느라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대회 기간에도 일반 내장객을 받는 골프장이 많은 데다 방송 중계에 필요한 성적 집계 등 대회 진행요원으로도 많은 캐디를 내줘야 한다.

이와 함께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도 대회 때 프로 선수들의 백을 때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도 한가지 원인이다.

조언 한마디가 선수들의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데다 전통 카트를 쓸 수 없어 수동카트를 끌고 다니거나 직접 백을 메야하는 등 심신이 피곤하다.

그렇다고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봉사로 10만원 내외를 받는 게 고작

이다. 대회를 개최하는 골프장이 캐디를 내주지 않으면 선수들은 각자 캐디를 구해야 하지만 쉽지가 않은 실정.

정상급 선수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전문 캐디를 고용할 수 있고 하우스캐디 배정 때도 전년도 상금순위에 따르기에 캐디 구하기는 수월한 편.

또 아버지나 오빠, 동생 등 가족들이 골프를 치거나 골프에 대해 잘 아는 선수들은 비교적 고민이 적다.

또 소속된 골프 연습장 레슨프로나 다니는 학교 골프부 동료나 선, 후배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변에 마땅한 캐디 ‘자원’이 없는 선수가 더 많기 때문에 상당수 선수들은 대회를 앞두고 캐디 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금순위 40위권이라는 한 선수는 “달리 도와줄 사람이 없어 주니어 골프 선수인 친구 동생에게 부탁을 해봤는데 대회 때마다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인 선발 3명 중 김병현 ‘최고’ 평가

84위~美 'CBS 스포츠라인'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미국의 스포츠 전문 웹사이트 CBS스포츠라인으로부터 한국인 선발투수 3총사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병현은 10일 CBS스포츠라인이 올 시즌 승패와 방어율, 이닝수, 볼넷, 탈삼진을 근거로 평가한 판타지 베이스볼 선발투수 순위에서 대만 출신의 왕치엔밍(뉴욕 양키스)보다 한 계단 높은 84위로 평가됐다.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서재웅(27·LA 다저스)은 각각 91위와 105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발투수 1~3위에는 다승 공동선두(5승)인 마이크 무시나(양키스·방어율 2.35·8볼넷·42탈삼진)와 호세 콘트라라스(시카고 화이트삭스·방어율 1.41), 브랜던 웨(애리조나·방어율 2.05)이 차례로 올랐다.

하반기 부상 때문에 지난 달 팀에 합류한 김병현은 선발등판한 2경기 연속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9개의 삼진을 뽑으며 1승과 함께 방어율 3.29를 기록 중이다.

또 지난 6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9이닝 2안타 무실점 패투를 했던 박찬호(1승1패·방어율 4.12)와 2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투구에 3자책점 이내)를 기록한 서재웅(1승2패·방어율 4.85)은 방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김병현에게 밀렸다.



“2002 伊 토티 퇴장은 치밀한 사전작전이었다”

최진한 당시 트레이너 비망록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 16강전에서 이탈리아 플레이메이커 프란체스코 토티의 퇴장을 끌어낸 건 치밀한 사전 작전이었다”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일케한 히딩크호의 뒷배기가 당시 대표팀에서 트레이너 역할을 맡고 있던 최진한(45) 코치의 비망록에 의해 공개됐다.

최 코치의 비망록에 따르면 토티가 16강전에서 두 차례 경고를 받고 퇴장당한 것은 다혈질적인 그의 성격을 치밀하게 이용한 사전 작전이었다고 한다.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은 오른쪽 수비수 최진철을 불러 토티에게 거칠게 파울을 많이 하고 경고와 퇴장을 이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토티는 다혈질이니까 거친 파울을 많이 하면 자체력을 잃게 된다는 게 히딩크 감독의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또 김태영, 홍명보, 김남일에게도 토티의 퇴장 유도도를 지시했다고 한다. 붉은 악마와 응원단에도 심한 아우를 퍼부어 경고 유도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홍명보에게는 에콰도르 출신 심판인 바이런 모레노 주심에게 끊임없이 항의할 것을 주문했다.

KIA 한기주 별명 공모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슈퍼 루키’ 한기주(19)의 별명을 공모한다.

별명 공모는 10~25일 구단 홈페이지(www.kiatigers.co.kr)에서 진행되고 홈페이지 회원은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 1명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하고 응모자 가운데 5명을 추첨해 MP3 및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

한기주는 당첨자 6명을 식사에 초대해 팬미팅 시간을 갖고 기념촬영도 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심판 “음메 기죽어”

10일 미국 AT&T 센터에서 열린 델러스 매버릭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2차전에서 델러스의 에릭 매퍼와(왼쪽)와 덕 노비츠키. 조시 허워드도 심판을 가운데 두고 하이파이프를 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선 델러스 매버릭스가 113-91로 승리했다. /AP=연합뉴스

오거스타 골프 클럽 ‘禁女전통’ 계속된다

오거스타내셔널골프클럽이 지키고 있는 금녀(禁女)의 전통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

빌리 페인(58) 오거스타내셔널골프클럽 신임 회장은 8일 컨퍼런스 룸을 갖고 “남성 회원 전용의 관행을 바꿀 의향이 없다”면서 “멤버십 문제는 모두 회원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문제삼을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해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마

스터스타가 열리는 오거스타는 지난 2003년 마사 버크 전 회장이 이끄는 전미여성단체연합(NCWO)이 성차별이라며 특별한 규정도 없이 여성 회원을 수용하지 않는 전통을 버릴 것을 요구하면서 줄곧 논란을 일으켜왔다.

특히 여성단체연합측은 마스터스타드 스포츠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2003년과 2004년 대회는 광고없이 TV중계되기도 했다.

73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거스타에서 지난 주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티 존슨 전 회장의 뒤를 이은 페인 회장은 “버크 전 NCWO 회장과도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어떤 대화도 의미가 있거나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1일(목)

▲메이저리그(보스턴-뉴욕Y)(07:55-Xports), <밀워키-샌디에이고>(10:55-Xports, 11:00-KBS2)

▲월드컵 출전국 평가전(미국-일본)(14:00-MBC)

▲제7회 증명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16:00-KBS SKY SPORTS)

▲일본프로야구(세이부-요미우리)(17:50-SBS스포츠)

▲프로야구(SK-KIA)(18:30-MBC ESPN), <두산-롯데>(18:30-KBS SKY SPORTS), <LG-삼성>(21:50-SBS스포츠)



홈런 세방에 2승 ‘물거품’

서재웅, 3.10일 6실점 패전은 면해

‘컨트롤 아티스트’ 서재웅(29·LA다저스)이 난조를 보이며 조기 강판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패전은 가까스로 면했다.

서재웅은 10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군프로야구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3.1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잡았지만 홈런 세 방을 포함해 안타 8개, 볼넷 1개로 6실점했다.

서재웅은 5-6으로 뒤진 4회 1사 1루에서 마운드를 프랑켈리스 오소리아에게 넘기고 강판해 홈 경기 첫 승과 시즌 2승째를 포드시 무산시켰다.

서재웅은 하지만 팀 타선이 5회말 1점을 뽑으며 6-6 동점에 성공, 다행히 패전을 면했다. 이에 따라 시즌 성적은 여전히 1승2패.

이날 던진 공 60개 가운데 40개가 스트라이크였고, 방어율은 4.85에서 6.00으로 치솟았다.

출발부터 좋지 않았다.

1회 1사에서 윌리 타베라에게 우전안타를 내준 서재웅은 감타자 랜스 버크만을 좌익수 뜰공으로 잡았지만 2사 1루에서 4번타자 모건 앤스버그에게 홈런을 얻어맞고 2점을 내줬다. 서재웅은 또 4회초 선두 윌슨에게 안타를 맞은 서재웅은 레인에게 좌중월 투런 홈런을 맞으며 흔들렸고, 어스무스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애덤 에버렛에게 다시 홈런을 맞으며 벌어놓은 점수를 한꺼번에 까먹고 무너졌다. 상대 선발 페티트를 땅볼로 잡은 서재웅은 크레이그 비시오에게 좌전안타를 맞은 뒤 결국 마운드를 내려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특성·능력우선의 시대 전문자격증이 곧 경쟁력!!-

● 사립대학 입학취급(고졸)프로그램, 취업준비교육
● 취업준비교육, 사립대 입학준비

▲실무위주교육▲ **▲자격 취득보장비밀▲**

아카데미명생교육원

특성: 5월 11일(목) **동점 시험스쿨** **5월 15일(월) 취업스쿨**

실용영어회화 **실용영어회화**

실용영어회화 **실용영어회화**

● 1. 1년 과정 24개월
● 2. 1년 과정 12개월
● 3. 1년 과정 6개월
● 4. 1년 과정 3개월

과제공부 **기초이론** **현장실무** **전문자격취득** **취업지도**

아카데미명생교육원

062) 522-5500

수도 배관 (방문수리) 세정업체

엘케이그린(주)

수도배관은 청소를 안하면 안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십니까?

● 1. 배관 청소 (수리) ● 2. 배관 세정 (방문수리)
● 3. 배관 교체 (수리) ● 4. 배관 점검 (방문수리)

● 1. 배관 청소 (수리) ● 2. 배관 세정 (방문수리)
● 3. 배관 교체 (수리) ● 4. 배관 점검 (방문수리)

엘케이그린(주)

062) 603-0700